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 가장 큰 고민은 '임금'

지지원센터 올 1182명 상담
지난해 보다 24% 증가
47%가 퇴직금·채임 등 내용
연령대별 60대 이상 가장 많아

#. 실제 저는 새벽 5시 또는 5시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회사에서는 6시부터 근무를 인정해줬어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돼있는 시간에도 대부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광주 북구 소재 병원 조리원 A씨)
A씨 사례처럼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임금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공개한 2019년 비정규직 노동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센터를 이용한 상담자는 1182명으로 지난해 952명보다 24.2% 증가했다.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임금(46.7%)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계산 방법, 미지급 관련 내용과 임금 체불 계산액, 대응 방법 등 상담이 많았다.
징계·해고 관련 내용은 12.4%였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기간제 단기 계약약을 수차례 갱신했다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다.
4대 보험이 10.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온 사례가 많았다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전했다. 상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고령 노동자 상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준호 변호사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

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자포자기하거나 해결하는 길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언제나 상담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3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전문 전문가와 노무사를 두고 비정규직 권익을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노동조합 건설 등 조직화 지원사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토론회·홍보캠페인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사업 ▲경비노동자 지원사업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활동 ▲야유회·영화·전시회 등 비정규직 문화활동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강좌 ▲

비정규직 처우개선 홍보, 최저임금 준수, 불법파견 근절 캠페인 등 비정규직 권리 찾기 홍보활동 등을 한다.
노동 상담의 경우 상담접수→상담분석→상담 1~3차→상담처리→결과 정리 순으로 진행한다.
1차 상담은 전화 문의, 거리 상담, 캠페인 등을 통해서, 2차 상담은 자료에 입각한 심화상담, 출장 혹은 내방 상담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해결 권유, 조정 등을 한다.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제 청구 및 심사 청구, 고용보험센터 절차, 변호사 안내 등 구제절차도 지원한다. 구제절차 과정에서 대응방법 및 의문점을 상담하는 사후 상담지원도 한다.
센터 위치는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번지 4층이다. 전화 (951-1980, 1588-0620) 상담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임대진 사무관·동부소방서 박형주 소방위 세원발굴·인명구조 달인 됐다

행안부 '지방행정 달인' 선정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과실 임대진 사무관과 동부소방서 박형주 소방위가 행정안전부 주최의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장에서 열린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행사에서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발된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46명의 공무원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위생, 적극행정 등 7개 분야에 도전했다. 1·2차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이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임대진 사무관은 적극행정 분야에서 '세원발굴의 달인'으로, 박형주 소방위는 주민안전 분야에서 '특수사고, 인명구조의 달인'으로 각각 선정됐다.
임대진 사무관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임원에 보도된 문제점을 찾아 적극행정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전국 최초로 재산세 과세대상과 공유재산 대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업무협업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했으며, 이

특수재난 대응 전문서적 편찬과 인명구조장비 개발, 특수사고 전문감사 출강 등 특수사고 인명구조 분야 멀티 소방관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다.
임대진 사무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세원 발굴과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소방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은 가치있는 직업을 선택한 일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년 광주 인권마을 성과발표회
| 일시·장소 | 2019. 12. 27.(금), 14:00 시청 행복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광주인권마을
광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2019년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성과발표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권마을 성과발표회 19개 마을 올 성과 공유

광주시는 27일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2019년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올해 인권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권마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인권마을 만들기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권 거버넌스 사업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함께 마을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모아 인권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된 인권마을은 2019년 19개 마을로 확대됐다. 마을주민들이 인권교육, 인권문화제, 인권캠프, 인권실태 조사,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 등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광주시는 최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유니세프가 인증하며 4년 간 유지된다.
광주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권리를 존중받는 광주공동체' 추진을 위

해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전국 광역·시·도 최초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 등 다양한 아동 친화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2020년 조직개편으로 아동친화팀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아동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市소방본부, 구급지도관 대회 '우수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구급지도관 강의연찬 대회'에서 전국 2위인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회째를 맞은 '구급지도관 강의연찬 대회'는 119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관'의 역량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에서 76명의 시도 구급지도관들이 참여했다. 심정지 등 19가지 응급상황 중 4명

로 선정된 주제를 각 시도 대표 1명이 강의방식으로 열린 경연을 펼쳤다.
광주에서는 동부소방서 박준성 소방장을 비롯해 소방학교 나선영 소방장, 북부소방서 이재식 소방장, 광산소방서 김성은 소방장 등 4명이 1조를 구성해 시 소방안전본부 대표로 참여했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수준 높은 구급지도관을 활용해 시민에게 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내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 참여자 모집

지역공동체 72명·공공근로 43명...내달 6일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며,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북구 주민에 한하며 모두 115명 모집한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통 문화 지원, 산책로 정비, 구립도서관 도우미, 정보화 교육, 드론비행연습장 안내 등 총 35개 사업으로 72명을 선발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DB 구축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기타 등 4대 분야 총 32개 사업에 43명의 근로자를 선발한다.
근로시간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이고 65세 이상자는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이내로 운영하며 시급은 8590원이 적용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신청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자격증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평생 어부바 신협